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 연구: 근거이론접근을 중심으로*

A study on professional identity and development in family counselors

- Focusing on grounded theory approach-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박사 노미화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최연실**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Doctor: Noh, Miwha

Professor: Choi, Youn Shil

목 차

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대상 및 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and understand what professional identity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re like in family counselors. **Method:** This study to achieve its purpose, collected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 with fifteen(15) family counselors through grounded theory approach. **Results:** Major research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76 concepts were drawn through open coding, again classified into 47 categories and finally into 18 subcategories. Through selective coding, 'growing as an expert in family counseling through continuous exertions for growth' appeared as core category. Through this process, the type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in family counselors were classified into job pursuing type, self achieving

* 본 연구는 주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전자: yschoi@smu.ac.kr

type, self understanding type, and volunteering type. Through process analysis, family counselors' professional development could be divided into three steps with the course of time: step of immersion, self-understanding and acceptance, and integration. Based on this, the hypothetical relations in four areas: personal area, family area, interpersonal area, and vocational area were summarized in statements. **Conclu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ttempted to establish a theory to explain the professional identity, development and influence factors shown in family counselors. It also provides those who hope to grow as expert in family counseling with long-term visions and implications for family counselor training and supervision. In this study, the suggestions on the tasks to check and solve the factors for improving and supporting the foundations of family counselors' professional identities by highlighting the family counselors own identify that is different from other counselors are expected to be used as primary data for preparing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amily counseling in the future.

주제어(Key words): 가족상담사(family counselor), 전문직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 가족상담사 전문직 발달(family counselor professional development), 근거이론(grounded theory)

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상담이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이 검증되면서, 상담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족상담 또한 개인과 가족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도 그 유용성이 검증되면서 교육, 의료, 복지,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서의 가족상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Kim, Noh, & Choi, (1996).

가족상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급증하면서, 가족상담사라는 전문상담인력을 훈련하고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부터 가족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에 전공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하였고, 가족상담 및 상담학과 전공을 개설한 학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Shin, Noh, & Kim. 2005). 이

러한 환경 속에서 가족상담을 공부하려는 사람들 또한 계속 늘어났다. 그러나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 훈련된 가족상담사가 공급되고 효과적인 가족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가족상담사 양성 및 자격 검정체계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의 가족상담 전문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상담경험, 그리고 지도감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포함한 대부분의 상담센터에서 훈련된 가족상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사나 개인상담 이론만을 훈련받은 상담사 혹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가족상담사들이 부부 및 가족상담을 담당하게 하는 현실을 초래하였고(Cho, Choi, & Kim, 2015), 그로 인해 가족상담 서비스 수혜자들은 양질의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을 받거나 효과적인 상담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가족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사들 또한 개인상담과 가족상담의 차별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상담

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는 개인상담사와는 다른 가족상담사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가족상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사회와 일반인으로부터 독립된 영역으로 가족상담에 관한 전문성과 전문직으로서의 가족상담의 지위를 인정받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가족상담을 포함한 상담분야가 전문직(profession)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되고 하나의 전문직으로 발전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이들은 드물다(Park & Hwang, 2008). 하나의 직업이 전문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서비스에 대한 독점권, 법적인 인정, 표준화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Jang, 2015). 그러나 이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해 보더라도 현재 가족상담이 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요인들을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원인은 상담 방법과 이론이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전문화 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지만 상담자의 역할과 상담방법, 주 고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상담분야에서 대한 사회 일반의 전문직 지위획득이 어렵다는 데에 있다(Wheeler, 1980). 또한 진로 상담, 정신 건강 상담, 결혼 및 가족상담 등 상담 분야 내 다양한 하위 분야가 발달하면서, 상담의 하위 분야 간의 구별되는 전문지식과 기술체계 및 독점적인 서비스 영역, 그리고 독립적인 전문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상담이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족상담 자체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기반(evidence-based) 상담기법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자가 상담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결정하는 하나의 틀을 제공하는(Brott & Myers, 1999; Fridmen & Kaslow,

1986) 전문직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변화·발전시켜 왔는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족상담사 개인의 성장 뿐 만 아니라 가족상담사 접촉하는 내담자에게 제공되는 가족상담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가족상담을 교육시키는 전문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켜 전문가의 질을 높이고(Sprenkle 2003, as cited in Seo, 2010),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전문직으로서 가족상담직에 대한 정체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책임성에 대한 문제를 숙고하면서 바람직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Hwang, 1998).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족상담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의 주제별 경향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상담 연구들은 주로 가족치료 모델/이론(19.3%), 문제유형별(사례)연구(22.7%), 가족관계/과정/다양한 가족(22.7%)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다(Noh & Choi, 2015).

가족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을 탐색한 본 연구는 가족상담사의 교육내용과 목표, 훈련과정의 적합성 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슈퍼비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가족상담사의 자질을 이해하고 그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함을 통해 가족상담사의 개인적 성장 경험을 촉진하고 가족상담을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족상담 영역의 다양한 직업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상담자 발달을 설명하는 많은 모델이 있더라도 가족상담사 발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상담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전문직화 되어가는 가족상담사의 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전문직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

전문직은 직업구성의 하부단위로서,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직업 가운데 일부만을 포함하는 범주이다(Song, 2006). 전문직은 자신들의 일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소유하고, 일의 내용이나 조건에 관해 외적 간섭 및 통제를 받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산업사회의 노동력 구성에 있어 특수한 위치를 갖는 직업 범주로 여겨져 왔다(Oh & Sung, 2010). 따라서 교사, 변호사, 의사 및 상담사와 같은 전문직은 자격증과 전문적인 지식, 기술 그리고 규범을 보유해야 한다.

전문직 정체성은 다른 전문직과 구별되는 특성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전문직업인으로 인식하는 주관적 평가(Park, 1994)이다. 즉 전문가로서의 자신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태도를 통합하고, 전문가 공동체의 맥락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Gibson, Dollarhide, & Moss, 2010b). 이러한 전문직 정체성은 개인이 직업 훈련프로그램에 들어가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훈련과정을 거쳐, 직업에서 은퇴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게 된다(Reid, Dahlgren, Petocz, & Dahlgren, 2008). 개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고심하고, 매일 만나고 일하는 사람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편안함을 얻게 되고, 직업에서의 핵심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고 개인이 갖는 직업적 모호함도 처리해 나간다(Reid et al., 2008). 직업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들은 강력한 직업적 헌신을 느끼고(Troman, 2008), 공동체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숙련된 전문가들은 학습 및 발달을 계

속하고자 하는 열망을 경험하기도 한다. 전문직 정체성은 사회적 환경 내에서 개인의 경력과정 동안 그들 스스로 전문직의 역할을 정의하고, 그 역할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Ibarra, 1999). 전문직 정체성 또한 정체성 발달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교육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직무만족과 직업역할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2.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

Erikson의 발달 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상담자 발달이론은, 인간이 발달단계에 따라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담자 역시 상담경험과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해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았다(Shim, 1998). 상담자는 자신의 이론적 접근법과는 무관하게 일련의 연속적이고 위계적인 발달 단계를 거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상담자 발달의 궁극적 목표는 상담 현장에서 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함양하고(Skovholt & Rønnestad, 1992; 1995), 상담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여 상담자의 개인적 성향과 인지구조에 잘 부합되는 전문적인 개별화를 향해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Skovholt, 2003).

상담자 발달에 대한 관심은 Fleming(1953)의 연구를 기점으로 슈퍼비전 영역에서 시작되었다. Fleming은 상담자의 경험수준에 따라 학습과정은 다른데, 그 유형이 모방학습, 교정학습, 창의학습의 3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슈퍼바이저의 지도방법도 각 수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상담자의 발달단계나 수준이라는 개념은 Hogan(1964)의 발달단계 모형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Hogan은 상담자 발달이 연속적이고 위계적인 단계를 거치며 성장한다고 보았다. 그는 상담자 발달 모형에서 처음으로 ‘수준(leve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상담자는 슈

퍼바이저와의 관계에서 의존수준, 의존-자율성의 갈등수준, 조건적 의존 수준, 전문가 수준에 이르는 위계적인 4단계를 거쳐 성장한다고 보았다. Stoltenberg와 Delworth(1987)는 상담자의 발달수준을 3개의 구조와 8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 '통합발달모델(Integrated Developmental Model)'로 설명하였다. 상담자는 세 구조(자기와 타인에 대한 인식, 동기, 자율성-의존성)와 8가지 하위 영역(개입기술, 내담자 개념화, 대인관계 평가, 개인적 차이, 이론적 배경, 평가적 접근과 기술, 치료목표, 전문가 윤리)에 걸쳐 세 가지 수준을 거치면서 발달한다.

이후 Skovholt와 Rønnestad(1992)는 기존의 상담자 발달모델에 대한 연구가 슈퍼비전 경험에만 국한해서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상담자의 발달에 개인적인 삶과 환경적인 요인들을 포함시킨 8단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모형은 100명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자료를 토대로, 전 생애적 발달 관점을 취하고 있다. 각 단계에서 상담자들은 개념 정의 및 소요시간, 상담자가 수행해야 할 핵심과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서, 상담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담자가 채택하는 역할과 상담방식, 내담자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적용하는 개념체계, 정보를 얻고 새로운 배움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학습방법, 상담의 효과성과 만족도 8가지 항목을 갖는다. 이들은 또한 상담자의 전문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담자의 경험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다. 상담자는 점차 개별화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상담 스타일과 개념화 방식이 외부에서 내부로 지향하는 형태를 보이며,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자기성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획득된 지식을 통해 자기가 구성하는 지식이 변화되면서 불안감도 점차 감소된다고 한다.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은 고유한 발달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은 선형적이기 보다는 순환적 과정

을 겪는다. Brott와 Myers(1999)는 학교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 발달은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음 단계로 이어나가는 순환과정이라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안내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영향 요소의 혼합(blending of influences)”이라고 부르는 전문직 정체성 발달의 과정이 전문적인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상담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포함시켰다. 이 과정은 구조화 단계, 상호작용단계, 구별화 단계, 그리고 진화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 단계인 구조화 단계에서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은 외부적 구조, 즉 규칙, 규정, 지시에 기초한다. 두 번째 단계는 상호작용으로, 외부적 구조와 더불어 학생, 동료, 슈퍼바이저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 세 번째는 구별화 단계로, 이 단계에서 전문가 역할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개인의 정체성이 전문직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상담자는 구별화 단계에서 자신의 전문적인 역할에 대해 내부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을 내리고 평가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진화단계는 앞선 세 단계의 상호작용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Auxier와 동료 연구자들(2003)은 전문직 정체성 발달이 개념적 학습, 경험적 학습, 그리고 외부평가가 상호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정체성 형성과정의 순환”임을 밝혔다. 상담 훈련생들은 초기 단계에서 이론적 모델에 대한 학습과 지식획득이라는 개념적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념적 학습은 점차 경험적 학습으로 대체되며, 새로운 행동과 정서적 자각, 전문가적 언어와 표현을 통한 대인관계 패턴의 발달, 그리고 피드백을 통한 상담기술의 숙련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 상담 훈련생들은 상담자로서 혼란을 겪고 이로 인해 불안감이 증가하게 된다. 외부평가는 경험학습의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내담자, 동료, 슈

퍼바이저, 전문가들의 평가가 훈련생들에게 불안을 일으키지만 상담자로서 자신의 상담기술과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 후, 외부평가와 피드백으로 인한 불안은 점차 감소하고 개인적인 측면과 상담가로서의 자신에 대한 내적인 자기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Gibson과 동료 연구자들(2012)은 대학의 상담 훈련생 43명을 대상으로 전문직 정체성 발달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교상담사와 부부 및 가족상담사의 정체성 발달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상담의 정의, 성장에 대한 책임감, 조직 정체성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상담훈련생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정의된 내용을 통해 상담에 대한 개인적인 정의를 형성해 간다. 외부기관에 의해 지식과 전문적 성장을 추구하던 것에서 점차 전문성 발달을 위한 자신의 책임감으로 이동해 간다. 조직 정체성의 측면에서도 외부 검증(인증 및 면허)에서 전문가 집단과 상담자의 자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상담훈련생들의 전문직 정체성은 학위과정, 상담경험, 그리고 훈련과정을 통해 외적인 변수들에서 자기변수로 이동하는 발달과정을 보여준다.

전문직 정체성 발달 과정에서는 문화적 차이점과 공통점도 존재한다. Nelson과 Jackson(2003)은 대학원 상담 프로그램에 있는 히스패닉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담사들은 민족이나 인종과 관련 없이 지식, 개인적 성장, 경험적 학습을 공통적으로 경험하지만, 히스패닉의 문화 요소인 대인관계에 대한 강조, 성취감, 비용 등의 인식이 전문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지식 획득은 참가자 사이에서의 공통된 주제였으며, 민족이나 인종 같은 불변의 요소들은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문가 효과에 대한 대인관계 영향과 이론적 접근에 기반을 둔 학습과정에 대한 지적 영향도 지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담훈련생들은

초기에 습득한 지식을 적용하려 노력하며, 이러한 지식과 기술이 불안을 감소시켜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은 “연속적인 과정/평생과정(continually becoming)”으로, 학위과정의 시작에서부터 상담을 그만두는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이다(Smith, 2007). 상담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기관의 회원들과 공통적인 인식과 특징을 공유하고, 배움을 지속하고자 하는 열의와 낙관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Nyström, Dahlgren, & Dahlgren, 2008).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모임과 회의, 콘퍼런스를 통해 형성된 소속감을 기반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한다(Calley & Hawley, 2008). 훈련 기간 동안, 학생들은 이상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휴머니즘에 기반을 둔 목표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상담을 직업적으로 하는 현장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된다. 상담현장에서 상담사들은 새로운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고 거기에 점차 적응해 나간다. 상담현장의 경험은 자신이 배운 것과 현실과의 차이를 인지하게 하며, 이러한 격차를 채우기 위한 지속적인 배움의 욕구를 갖게 만든다. 결국 상담사들은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생성하는 직업이 갖는 과제를 안게 된다. 그들은 상담현장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자신과 내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형성은 물론 소속된 조직이나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전문직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Nyström et al., 2008).

많은 상담자들이 발달과정에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상담자의 정체성 혼란이란, ‘나’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마주하며,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모호하게 알고 있었던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에 대한 확신에 대해 조금씩 틈이 생기고 예전의 나 같지

않음을 느끼는 것이다(Hwang, Park, Yoo, & Kang, 2009). ‘나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기이해와 수용의 확장은 상담자의 삶에 적용되어 보다 전문가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Oh, 2009). 이러한 과정은 상담자의 자기성찰(Skovholt & Rønnestad, 1992; 1995)과 자기 자각(Stoltenberg & Delworth, 1987)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상담자 발달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3. 가족상담사 발달

가족상담 영역에서는 두 가지 발달 모델이(Everett, 1981; Friedman & Kaslow, 1986)이 제시되었다. Everett(1981)는 가족상담사와 그들의 슈퍼바이저 관계 연구를 통해 4단계를 가정하였다. 1단계에서 가족상담사들은 자기에적 자아(narcissistic self)를 포함하는 선입견으로 인해 슈퍼바이저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우려하고 꺼린다. 2단계에서는 자기 보호와 내담자와의 작업(engagement with client), 그리고 슈퍼바이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통제 이슈들에 대해 갈등하며, 이를 양가적인 감정으로 표현하게 된다. 3단계에 이르게 되면 가족상담사들은 스스로를 슈퍼바이저와 동일시하고, 슈퍼바이저와 개방적인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가족상담사들은 슈퍼바이저와 분리하여 자신만의 독립된 정체성을 수립하게 된다.

Friedman과 Kaslow(1986)는 6단계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였다. 1단계는 가족상담 훈련생들이 내담자를 만나고 첫 슈퍼비전을 마치는 시점으로 선행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짧게는 몇 시간에서 수개월까지 지속되며 가족상담 훈련생에게 내담자가 배정되면 끝난다. 2단계는 의존 단계로서 가족상담 훈련생들은 슈퍼바이저에게 상담에 대한 답을 묻거나 의존한다. 3단계에서 가족상담 훈련생들은 독립성을 추구하는 과정에 이르지

만 슈퍼바이저에 대한 의존 상태는 지속된다. 이러한 지속적 의존 단계는 상담을 시작한 후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가족상담 훈련생들은 내담자가 자신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비로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발달 단계에서 가족상담 훈련생들은 이론과 실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4단계에 이르러 가족상담 훈련생들은 충만함과 책임감을 갖게 된다. 가족상담 훈련생 자신이 효과적이고 유능한 치료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책임감을 갖기 시작하며, 종종 ‘치료자’라는 정체성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을 자각하는, 보다 효과적인 치료 효과가 임상경험이나 슈퍼바이저를 비롯한 동료들과의 빈번한 토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고 통합되기 시작하면 가족상담 훈련생들은 ‘심리 치료 이론과 실천 간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이 단계에서 가족상담 훈련생들은 이론적인 방향 또한 개인적으로 구별하기 시작한다. 5단계에서는 4단계까지의 훈련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더욱 발달시킨다. 정체성과 독립성 단계는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와 유사하며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권위 있는 인물과 갈등이나 충돌을 빚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형성한 이론적인 기준이 구조적인 안정성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는 평온함과 함께 슈퍼바이저와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적 관계가 형성된다. 평정함과 동료협력관계의 단계에서 가족상담 훈련생들은 잘 정립된 전문적 정체감을 갖게 되며, 동료들과의 공감과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확고한 이론적 토대에서 비롯되는 안정성은 가족상담 훈련생들로 하여금 치료 모델의 기본 텍스트를 자유롭게 검토하고 질문할 수 있게 한다.

III.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고자 질적연구 방법 중 근거이론을 활용하였다. 근거이론은 현상에서 적합한 개념이 확인되지 않고 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특정한 현상에 적합한 변인과 그렇지 않은 변인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존의 이론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야들이나, 비록 기존 이론이 있으나 수정되거나 명확하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들에 대해 적절하게 활용(Strauss & Corbin, 1998)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또한 근거이론은 참여자들에게 회고적 면담을 하게 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험 과정을 단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변화 과정이나 적응과정 등을 밝혀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과정’이라는 개념은 근거이론의 특징으로 표현된다. Corbin과 Strauss(2009)는 과정이란,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반응하여 진행 중인 작용/상호작용/정서이며, 종종 목표에 이르거나 문제를 다루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의 방법은 특정 주제에 대한 과정, 행동,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에 대한 경험과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근거이론은 적합한 방법론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이론을 개발하는데 활용의 적합성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은 연구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징과 주의사항을 갖는다. 첫째,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이다. 근거이론에서 이론적 표본추출은 연구자가 자료로부터 나온 개념에 근거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연구자는 특정주제의 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 상황을 중심으로 추출한다(Corbin & Strauss, 2009). 사람을 표본추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표본추출한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한다. 이론적 표본추출의 경우 자료를 모으고 분석이 이루어지는 작업을 통해 범주가 ‘포화’에 이를 때까지 자료수집이 계속된다. 둘째,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이다. 근거이론 연구자는 자료의 의미나 가치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자료에 대한 고찰이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적 수준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연구자의 개인적 자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론적 민감성은 현상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비교분석, 추가 자료수집의 영역과 방법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연구자의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다. 셋째, 지속적인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이다.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출현한 개념들과 이전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개념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면서 범주화 한다. 이러한 과정은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자료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까지 계속한다(Strauss & Corbin, 1998). 또한 연구자가 어떻게 분류할지 확신을 못하거나 속성 및 차원과 관련하여 사건을 정의할 수 없을 때는 이론적 비교를 사용한다. 넷째,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에 기초한 패러다임 모형구축이다. Strauss와 Corbin(1998)은 근거이론의 분석절차를 개방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고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을 제시한다. 개방 코딩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통해 범주를 만들

고, 축 코딩에서 범주들을 연결시키며, 선택 코딩에서 범주들을 연결하는 이야기를 구성하게 된다. 패러다임 모형에서는 인과적 조건, 맥락,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를 통해 특정 현상에 대해 설명 한다. 다섯째, 이론의 생성이다. 근거이론의 핵심은 연구하고자 하는 중심현상을 맥락에 근거하여 살펴봄으로써, 관련 이론을 개발 혹은 생성하는 것이다.

1. 연구절차

본 연구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의 선정 단계이다. 가족상담사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연구의 주제와 방향을 정립하고 연구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예비면담을 실시하였다. 문헌고찰 및 예비면담을 통해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과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예비면담을 진행하였다. 둘째, 연구계획 및 참여자 선정 기준 마련 단계이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연구 절차 및 일정을 확정하고 연구 주제와 연구방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예비면담을 통해 작성된 면담 질문지의 구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연구 참여자와 비교집단 참여자 선정 기준도 마련하였다. 셋째, 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단계이다. 눈덩이 표집을 통해 연구에 부합하는 연구 참여자와 비교집단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에 따라 최소 1~3회기 실시되었고, 심층면담의 시간은 회기 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심층면담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자 메모 및 기타 자료를 활용하였다. 근거이론에서 메모는 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느낌과 감정, 연구와 관련된 철학적 입장, 선행연구에 대한 생각, 연구설계에 관련하여 생각나는 이슈, 문제, 그리고 관심들, 연구과정에 대한 다양한 성찰, 분석을 내리는 결정에 대한 생

각, 코드, 범주, 이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다(Birks & Mills, 2015). 넷째, 자료분석 단계이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 내용은 면담 후 곧바로 축어록으로 전사되어, 연구자의 메모, 기타 수집된 자료 첨부와 함께 자료분석 진행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분석 내용은 다음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에 반영되어, 연구 질문을 보다 명료화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자료분석은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과정을 거쳐 패러다임 모형으로 도출되었다. 분석 과정은 근거이론 연구 경험자, 질적 연구 방법론 전문 지도교수의 지도 및 자문을 통해서 그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분석내용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코딩자료와 원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검토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결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비교집단 연구 참여자나 기타 본 연구 참여자와 비슷한 특징을 지닌 가족상담사에게 묻거나 자문을 구하였다. 다섯째, 결과 및 논의 단계이다. 본 단계에서는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결과 및 논의를 작성하였고 연구결과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연구를 완성하였다.

2. 연구 참여자

근거이론에서 참여자 선정은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는 이론적 표본 추출의 원칙에 따라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발달에 관심을 갖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15명의 가족상담사들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상담관련 학회 1급, 2급 자격증 소지자로, 6~15년 이상의 가족상담 경력을 갖추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은 여성 13명, 남성 2명이었으며, 30대가 1명, 40대가 5

명, 50대가 8명, 60대가 1명으로 평균 연령은 51.1세였다. 최종학력은 석사 4명, 박사수로 및 박사가 11명이다. 개인상담소 및 상담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7명과 비정규직 가족상담사 8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의 가입 학회 수는 2~5개로 평균 3개 학회에 가입한 상태이다.

질적 연구에서 분석은 연구자와 자료간의 상호작용으로(Strauss & Corbin, 1998)이루어지며, 연구자는 중요한 분석도구가 된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I 급(한국가족치료학회)을 보유하고, 부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을 10년째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가족과 가족상담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가족상담과 가족상담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가족상담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기본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의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예비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진행 가능성을 검토한 후, 본 연구의 심층면담 참여자 선정을 위해 동료 가족상담사와 연구자가 속한 대학 교수들의 추천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추천된 연구 참여자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연구의 취지와 연구 진행 방식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동의 받았다. 추천에 의한 경우, 추천자와의 관계 특성이 반영되어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면서 설명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참여자들에게는 메일을 통하여 연구 설명서(참여자용)와 동의서를 사전에 발송하여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전 동의를 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5명의 연구 참여자가 본 연구 심층면담에 참여하게 되었다. 심층면담 내용에 대한 비교 결과가 더 이상 새로운 범주로 나오지 않는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e)의 시점을 기

준으로 15명과의 심층면담이 종료되었다. 연구과정에서 이론적 표집 대상자와의 차별성을 인식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와 다른 특성을 지닌 비교군으로 3인과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연구 참여자 선정에서 제외하였던 개인상담 영역과 기타상담 영역에서 상담을 하는 상담사들이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과정에 따라 진행하였다. 개방 코딩(open coding)은 원자료를 통해 개념(concept)을 발견하고 이름을 붙이며,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개념들을 하위범주(subcategory)로 묶은 후 범주(category)화하는 과정이다(Park, Kim, Bang, Oh, & Lim, 2012).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한 줄씩 분석해 나가는 줄 단위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주요한 개념들을 명명화하였다. 명명화된 개념들은 하위범주로 묶여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15명 각각의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과정과 연구 참여자들과의 차별적인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실시된 비교군 3명의 심층면담 자료를 비교하는 과정이 병행되었다. 범주화 과정은 가족상담 전문가인 교수 1인, 근거이론의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박사학위 소지자 1인, 가족상담 전문가 1인, 연구 참여자 1인의 자문과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

선택 코딩을 통해 핵심범주를 발견하고 서술적 이야기를 작성한 후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발달단계와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본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결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비교집단 연구 참여자나 기타 본 연구 참여자와 비슷한 특징을 지닌 가족상담사에게 묻거나 자문을 구하였다.

5. 연구의 타당성

질적연구의 평가는 양적연구와는 다르다.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평가기준을 고려, 적용하며 수행해야 한다(Park,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Yardley(2000)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였다. Yardley(2000)는 질적 연구의 질을 높이고, 평가하고, 증명하는 절차로 맥락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 to context), 투명성과 일관성(transparency and coherence), 헌신과 엄격함(commitment and rigor), 그리고 연구의 영향과 중요성(impact and importance)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맥락에 대한 민감성은 연구 참여자의 관점과 설정, 연구의 사회·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맥락,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 등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연구의 헌신과 엄격함을 통해 자료 수집, 사용된 방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표시하고, 주제와 관련한 상세하고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됨을 강조한다. 또한 연구의 투명성을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자료로부터 파생되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연구는 실용적인 유용성과 가설 생성 여부, 방법 변경 등을 통해 중요성이 확인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가족상담사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 패러다임 모형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한 줄씩 분석해

나가는 줄 단위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주요한 개념들을 명명화하였다. 명명화 된 개념들은 하위범주로 묶여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구성된 176개의 개념, 47개의 하위범주, 1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인과적 조건은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사고’를 말한다(Strauss & Corbin, 1990). 따라서 인과적 조건이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일로서, 개인이 특별한 반응을 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조건이나 상황을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상담에 대한 고민이 계속됨’이 중심 현상을 일으키는 인과적 조건으로 분석되었다. 맥락(context)은 ‘중심 현상에 내재된 구체적인 특성들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택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0). 맥락은 경험을 한정하거나 작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내에서 문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인간이 작용/상호작용 및 정서(과정)의 형태로 반응하도록 하는 조건들의 집합으로 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 및 원가족 경험’, ‘상담 커뮤니티 문화’,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은 ‘일련의 작용/상호작용으로 대처하게 만들거나 일련의 작용과 관련이 있는 중심적인 생각이나 사건, 사고’(Strauss & Corbin, 1990)이다.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은 어떠한가?’라는 질문과 이에 대한 심층면담의 결과로 나타난 중심현상은 ‘가족상담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음’이다.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준 중재적 조건은 본 연구에서 개인과 가족 영역에서 ‘가족상담사가 된 동기가 있음’과 대인관계 영역에서 ‘지지체계가 있어 든든함’, 그리고 직업 영역에서 ‘가족상담사로서 유능감을 경험함’과 ‘가족상담직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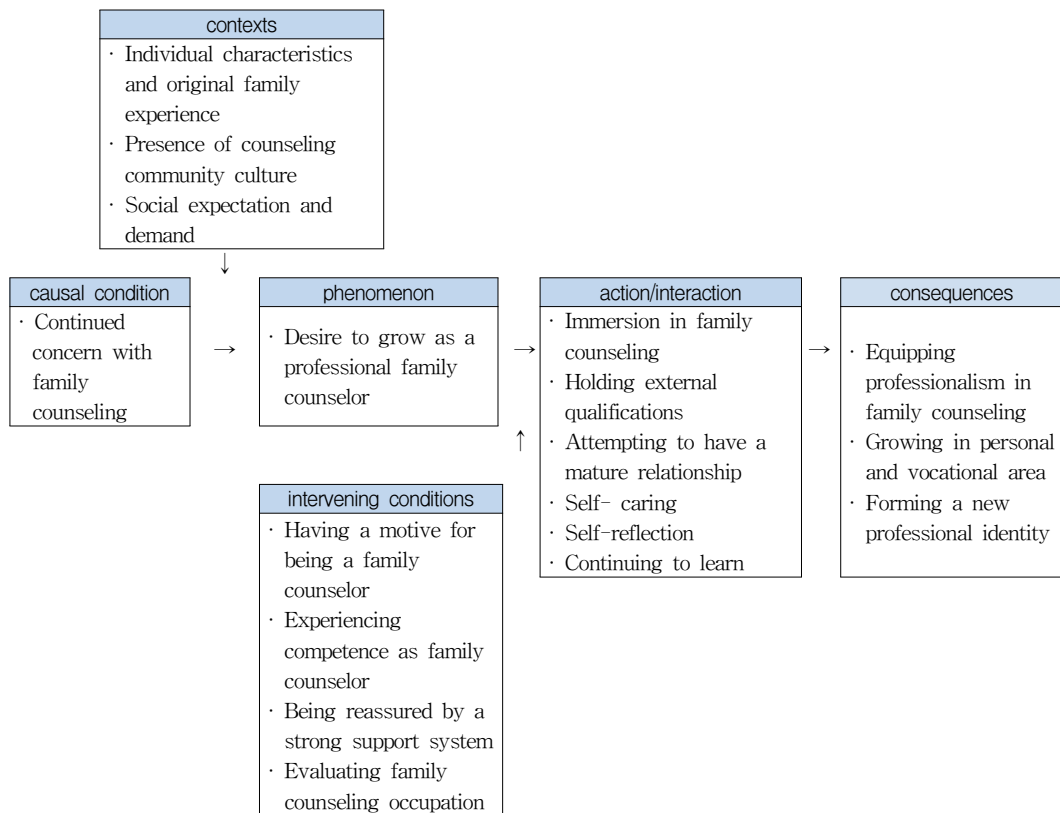
작용/상호작용은 ‘인지된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중심 현상을 조정하고 다루고 수행하거나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들’(Strauss & Corbin, 1990)을 말한다.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에서 비롯된 이론의 정립은 근거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가족상담에 몰입하기’, ‘외적인 자격을 갖추기’, ‘성숙한 관계 맺기를 시도함’, ‘자기돌봄을 함’, ‘자기성찰을 함’, ‘지속적인 학습을 함’이다.

결과(consequences)는 ‘작용과 상호작용으로 얻어진 성과나 결과’(Strauss & Corbin, 1990)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가족상담 전문성을 갖추’, ‘개인과 직업영역에서 성장함’, ‘새로운 전문직 정체성이 형성됨’이다. 가족상담사

의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2. 가족상담사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 단계

과정분석은 자료에서 작용/상호작용으로 표현되는 범주와 하위범주들 간의 연속적 연결을 탐색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황의 변화를 추적하는 단계(Strauss & Corbin, 1998)를 말한다.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구조화된 사례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용/상호작용의 변화에 따라 통합되었다. 그 결과 가족상담사의 발달 단계는 3단계로 ‘몰입 단계’, ‘자기이해 및 수용 단계’, 그리고 ‘통합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에



<Figure 1> Professional identity and development paradigm model of family counselor

따라 각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는 존재한다. 개인의 성격특성, 교육과 훈련과정,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 유형에 따라 ‘몰입 단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고 ‘자기이해 및 수용단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각각의 대처 전략들은 거의 모든 단계에서 수행되지만 각 단계마다 특정 전략이 중심이 되기도 한다. 몰입 단계 전, 연구 참여자들은 중심현상에서 나타나듯 교육과 훈련과정에서 모델링한 이상적인 가족상담사 상(像)을 갖고 있다. 이들이 모델링한 가족상담사 상은 가족상담 이론서에 있는 가족상담사나 교육과 훈련과정에서 모델링한 가족상담 대가의 모습에 기초해 있다. 이 단계에서 형성된 연구 참여자들의 전문직 정체성은 주체적이고 경험적이기 보다는 교육과 학습을 통해 무의식적 혹은 수동적으로 내면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 또한 추상적이고 원론적이며 학위, 경력, 자격증처럼 외부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1) 몰입단계

변화하는 가족상담 현장과 가족상담사로서의 부족함을 인지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상담 전문가로서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가족상담에서는 일반상담과는 달리 가족체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가족역동과 원가족 문제, 그리고 가족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족상담사로서의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가족상담사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여기에 자신의 미해결된 원가족 문제가 가족상담에 투사되는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가족상담 현장은 자신들의 준비여부와는 무관하게 단순한 공감이나 이해의 수준을 넘은 전문가

의 개입이 요구되는 전문영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병리를 동반하고, 폭력과 중독의 수위가 높은 가족사례들이 증가하면서 가족상담은 여전히 부담스럽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연구 참여자들은 몰입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몰입 단계의 전략은 가족상담에 몰입하기와 외적인 자격을 취득하기, 그리고 가족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에서 성숙한 관계 맺기를 시도하기 이다. 가족상담 사례수를 늘리고, 가족상담을 포함한 상담영역에서 대상과 문제유형의 다변화를 꾀하고, 상담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아간다. 가족상담 현장에서 가족상담 이론 틀에 맞춘 상담을 진행해보고, 가족상담사 역할을 의식하고, 셀프 슈퍼비전을 통한 반영도 지속적으로 해 간다. 상담과 상담 외의 교육, 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활동도 병행한다. 이들의 이러한 전략은 가족상담 전문가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사고하는 모습을 갖춰 나가게 된다. 상담이론과 상담경험이 결합되면서 가족상담의 의미와 가치, 가족상담사 역할에 대한 태도를 조금씩 익히게 된다.

“나만큼 한 사람, 우리나라에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10년 이상을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정말 몸이 부서지게 했거든요. 그리고 강의하지. 정말 사실 힘들었어요. 시간도 없고. 근데 그 정도 했으니까, 그냥 시간을 15년 걸렸다가 아니예요. 상당한 케이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이 정도 아는 것 같아요(참여자10).”

“바우처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바우처 사업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나고 있죠... 바우처 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은 내가 생활을 책임지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문화적인 질이 당연히 떨어져있고, 교육도

떨어져있고, 거의 사회복지개념의 상담이 되더라고요. 일반적인, 그냥 상담이 아닌, 교육차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담?(참여자 8)."

"가족상담 이론으로 접근을 하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역동을 같이 봐야지 진짜 가족상담이다.'라고 저는 체험을 한 거예요(참여자 15)."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위나 전문가 과정을 마침으로써 외적인 자격도 갖추어 간다. 석사 혹은 박사과정에 등록하거나, 가족상담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상담관련 자격증도 하나 둘 취득하게 된다. 외적인 자격을 갖추기 위해 슈퍼비전과 사례회의에 참석, 소속 학회 연수와 학술대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상담과 관련된 심리검사나 상담기법들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주말에도 쉬지 않았다. 이러한 외적인 자격 갖추기는 외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것이지만, 가족상담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심리내적인 안정감을 주기위한 것이기도 하다. 몰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상담 몰입과 외적인 자격을 갖추기는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외부적인 자격이지만, 자격들이나 인정들이 조금 갖춰지니까 제가 좀 편안해 지고, 차라리 저로 좀 있으면서 다른 분들하고나 내담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극적인 말을 들어도 유연하게 저는 대처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3)."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가족상담 경험과 교육 받은 상담기법들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가족, 가족상담 현장,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적용하고 검증해 보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가족상담사로서 명확한 경계선 갖기,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분리하기와 같은 가족상담사 역할과 태도에 대한

기준점들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더불어 가족상담의 효과를 대인관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가족상담직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상담의 기술, 방법을 남편한테 적용하니까 딱 좋더라고요. 회유도 잘되고, 그나마 말귀는 알아듣게 되고 자식하고는 다르게. 그러면서 그게 잘 먹혀 들어가니까 부부사이도 좋아지고, 남편하고도 잘. 마음에 있는 말들도 하면서 좋더라고요(참여자 9)."

"저희 남편이, 시댁에 000중독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지만. 남편이 끊을 수 있었고, 그렇게 끊을 때 내가 그동안 공부한 거를 많이 보탬이 되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12)."

이 시기 학습은 가족상담과 외적인 자격 갖추기에 필요한 상담도구나 심리평가, 소속 학회의 연수회 혹은 학술대회와 같은 외부 교육에 의존한다.

"그동안에 토요일 일요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등산가고 놀러가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사실은 부단하게 공부하러 다니고. 며칠 전에 00에 간 것처럼 계속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그 과정들 다 하려면. (그 곳마다)자격증들이 다 있잖아요(참여자 14)."

"공부하는 거. 아무튼 엄청난 돈을 퍼 붓었어요. 그때부터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참여자 11)."

몰입 단계는 가족상담사로서의 유능감을 경험한 빈도, 지지체계와의 관계정도 그리고 가족상담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가족상담사로서 유능감을 경험한 빈도와 가족이나 동

료상담사, 슈퍼바이저 등 주변의 지지체계와의 관계 정도에 따라 몰입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가족상담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더 많은 몰입을 위한 노력을 시도한다. 이 단계에서 가족상담에 몰입하기와 외적인 자격을 갖추기, 성숙한 관계 맺기를 시도함은 전문직 정체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전문직 정체성과 발달의 토대로 쌓이게 된다. 몰입 단계에서 보인 연구 참여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열정은 가족상담 전문가로 성장하고자하는 역동적인 모습이다. 몰입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가족상담에 몰입하기, 외적인 자격을 갖추기, 성숙한 관계 맺기를 시도는 개인영역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직업영역에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또한 긍정적인 가족상담 결과와 내담자 및 슈퍼바이저로부터의 긍정적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가족상담사로서의 유능감도 한 층 커지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가족상담사로서의 자부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들은 원가족과 성장기를 통해 형성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감소시켜, 긍정적 자기상을 갖게 된다.

2) 자기이해 및 수용 단계

몰입 단계에서 형성된 긍정적 자기상과 가족상담사로서의 자기효능감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기 내면과 가족상담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 추동력으로 자기이해 및 수용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다. 자기이해 및 수용 단계의 주 전략은 자기성찰과 자기돌봄이다.

자기성찰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성찰을 통해 개인과 직업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를 보게 된다. 즉 자신의 성격특성과 원가족 및 핵가족 내 역할이 가족상담사가 된 동기와 가족상담사로서의 자신의 역할, 태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가족상담 하면서 나의 원가족이라든가, 가족체계를, 나의 과정에 대해서, 나의 원가족에 대해서 그런걸 알게 되는 계기로서. 성장하고 많이 도움이 됐죠(참여자 2).”

개인과 직업영역에서 이루어진 자기이해는 핵가족과 원가족에 대해 이해와 수용의 폭을 넓히고 가족상담사 역할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태도를 갖게 한다.

“맨날 어머니만 보였거든요. 어머니상만 계속 보여 가지고. 어머니하고 나의 관계만 계속...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밀착이 되어서. 돌아가신 지가 20년 가까이 17,8년 되었는데. 어머니와의 관계를 계속, 어머니를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건지 와이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참여자 14).”

“(내담자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폭발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옛날에 오버해서. 그런 준비 안 된 상태를 제가 건드려서. 그런 짓은 이제 안 해요. 준비 된 것만 건드려서, 그것만 하기도 힘든데. 옛날에는 왜 그런 오지랖이 넓었는지. 보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론을 배웠으니까 보이잖아요. 찌르면 괜히 쓸데없는 짓을 가끔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능글능글해져서 준비되지 않은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요(참여자 9).”

현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자기신뢰도 점차 커진다. 이러한 모습은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신뢰→ 또 다른 자기이해 라는 순환적인 형태를 갖는다.

“상담, 잘했다기보다. 뭐랄까? 내가 여기에 만큼 와 있고, 이 정도면 내가 할 건 다 했다(참여자 11).”

“실제적으로 좋은 선생님들한테 교육도 받고 슈퍼비전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버텨내는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자신이 내담자하고 적절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조금씩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3).”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유지하려는 자기돌봄은 자기성찰의 결과물이자 자기성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타난다.

“예전에는 몸 쓰는 거를, 시간이 너무 아까워 했거든요. 책 한권을 더 보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니야. ‘운동해야겠구나. 거기 다 시간을 투자 해야겠구나, 아깝지는 않은 거야. 잘되진 않아요. 익숙하지는 않으니깐(참여자 4).”

이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성숙한 관계 맺기 전략은 가족의 관계를 향상시켜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가족상담 전문가로 성장하게 하는 지지체계로서 작용하게 된다.

“저는 상담사로서 제일 성공한 게 자녀하고 관계가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상담사가 되어야 할 이유가 저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아이하고 관계하고 있어서 상담사로서 자세가 도움이 많이 되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성격적으

로 상처받았던 것 회복되고, 원가족 어머니하고도 회복되고 계속 어려움은 있지만(참여자 3).”

이 시기 학습의 특징은 몰입 단계와는 달리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자신이 직접 찾거나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학습 내용 또한 강의나 외부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책, 인터넷 방송, 상담 외 강의 수강, 그리고 다양한 생활경험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운동, 여행, 취미활동 등 자기돌봄에서 나타난 요인들도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삶을 알아가는 학습 중 하나가 된다.

“요즘 상담 관련된 00상담소라든가 이런 관련 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이트를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문가는 아동 학대여도 사회적 이슈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같은 전문가지만 ‘그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지? 나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지? 내가 놓친 부분은 뭐지? 저 사람은 이렇게도 보는구나’ 라는. 어떤 차이점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참여자 12).”

3) 통합 단계

통합 단계는 몰입 단계의 경험과 자기이해 및 수용단계의 성찰을 거쳐, 가족상담 전문성과 개인과 직업영역에서의 성장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전문직 정체성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가족상담 이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담이론들을 통합하여 자신만의 가족상담 이론을 수립한다.

“00이론이 나에게 성향적으로 되게 맞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갖고는 좀 그럴 수 있을 텐데. (00이론 외에)**이론을 접하면서 미숙하지만 이해가 더 되고, 많이 도움이 되는... 이론이 2개 정

도는 있어요(참여자 15)."

"처음에 이 이론도 좋아 보이고 저 이론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잖아요... 보는 것마다 다 꽃밭이라고 표현을 쓰시던데. 근데 그거는 이제 몰라서 한 고민이었어요... 모든 이론은 궁극적으로 똑같아요, 다 통해요.... 결국은 그냥 사실은 모든 이론은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거고, 한 가지를 내가 깊이 알아보면 다 같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참여자 7)."

자기이해와 수용을 통해 성장한 인성은 개인과 직업영역에서 통합을 이루고, 가족상담사로서의 역할에 보다 유연한 태도를 갖게 한다.

"옛날에는 이론이나 방법이나 기법에 맞춰서 내담자를 봤는데, 지금은 그거를 하지 않아요. 내담자로서 봐... 내담자를 잘 이해하고 그 내담자의 맞는 기법을 이해한 거하고, 내담자에 맞는 어떠한 치료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참여자 10)."

"상담자 자체가 좀 성숙한 삶을 살아야지. 나 맨날 그 말하는데, 정말 '상담자가 뭐 저래?' 그런 말 우리가 막 하잖아요. 그니까 자기의 삶도 제대로 못 살고, 자기가 정말 상담자로서 정말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참여자 7)."

이러한 토대 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상담사에 대한 자기정의와 가족상담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간다.

"취미생활로 할 건지, 정말 내가 직업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해요. 착각을 한다는 거죠. 마치 취미생활이 직업으로 가는 것처럼.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선수가 돼야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

가 축구하는 게 정말 간절하고, 내가 이거를 해서 내가 어떤 사명감이 있다면 축구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맞죠. 직업과 취미를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서(참여자 4)."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 힘들어요. 늘 힘들지만 그래도 안 놓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봉사고 나한테 종교인 것 같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참여자 10)."

또한 가족상담사라는 직업에 따르는 개인, 가족, 사회적 책임과 기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된다.

"내 스스로가 이거를 하고 싶어서, 일어나서 하는 거잖아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사람 하나 없잖아요(참여자 14)."

"사실은 1급 따고 더 정신 차려지는 것 같아요. 2급 때 못 느꼈던 긴장감이... 책임감. 학회에서 인정하는 1급 상담사로서, 뭔가 뭐라도 물어보면 한마디 꾸역꾸역 하기는 해야 되겠다. 주인의식도 생기고 좀 책임감이 많이 생겨요. 어깨가 좀 무겁고(참여자 3)."

"'만원을 냈으면 만원어치 해줘야한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 편이라서. 주변에서 '너 왜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나?'는 얘기를 하는데. 만원을 받았으면 만원어치를 해줘야하지 않나 싶어요. 내가 돈을 받은 만큼 열심히 해 주는 것도 상담자들 몫이고(참여자 8)."

가족상담이 전문직으로서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한 현실로 인해 안정적인 가족상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모색을 시도하게 된다. 연

구 참여자들은 통합단계에서 자기성찰은 개인과 가족상담사 영역 외에 직업과 직업 환경으로까지 점차 확대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상담만 보면. 경영마인드로 보면 그것만 해서는 안 돼. 수요도 그만큼 많지가 않아. 부모들은 아동이 필요할 때 당신이 변할 생각을 하지. 자기를 위해서 아동을 하지는 않아요(참여자 10).”

“상담이 어떻게 흘러가야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딜레마겠지만 모든 사람한테 일정한 금액이 있을 때 다수한테 분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효과가 좋은 곳에 분배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일 텐데. 지금 다수한테 주려고 나눠주다 보니까. 시스템의 문제 인 것 같아요 (참여자 8).”

“적어도 본인이 상담을 하고, 업으로 하고 있다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기초수급자 되는 순간, 본인이 그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똑같은 마인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담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돕는다는 개념보다는 내 돈벌이가 된다는 이야기죠. 정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정한 수입이 될 수 있는 환경조건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 (참여자 5).”

지속적인 학습도 개개인의 가족상담직에 대한 평가와 성장욕구에 따라 외부교육에서 자기학습, 자기성찰, 슈퍼비전, 상담 관련 활동영역 등 다양한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저한테 동력이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힘들죠. 남들보다 힘들죠. 근데 그거 안하면 제가 너무 정체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싫더

라고요. 현장만 있는 그런 단순함은 싫어요. 뭔가 현장에 있지만 이론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고 싶은 거죠(참여자 1).”

“(이혼상담 의뢰가)가정법원에서 온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 5회기씩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좀 제가 미숙해서, 어떻게든 서로들 이혼을 안 하고, 자식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고민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책을 막 보게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거에 포인트를 잡기로 했어요. ‘건강한 이혼’이라는(참여자 9).”

통합 단계에 이르러 연구 참여자들이 모델링한 가족상담사 상은 자신의 경험과 교육, 자기성장을 통해 주체적인 전문직 정체성으로 통합되어 간다.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과 가족상담사라는 직업을 분리하기 보다는 개인의 특성과 삶의 경험이 가족상담사라는 역할에 영향을 주고, 가족상담사의 역할이 다시금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은 고정되기 보다는 개인과 직업 영역에서 지속적인 순환을 통해 변화, 발전해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3. 가족상담사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 유형

본 연구결과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발달 유형은 가족상담사가 된 동기와 관심영역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직업추구형은 졸업 후 취직, 이직, 은퇴 후 준비와 같이 새로운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가족상담에 입문하게 된 유형이다. 이들이 가족상담가 된 동기에 가족상담 수요의 증가와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과 가족상담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자기성취형은 자기실현의 도구로 가족상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였다.

가족상담사 역할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 데에 있다. ‘자기성취형’의 관심 영역은 자기이며 성장의 방향은 인정보다는 전문성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기이해형의 성장 초점과 관심영역은 ‘자기’이며, 가족상담사가 된 동기 또한 자신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한다. 사회봉사형의 성장 욕구와 관심영역은 ‘자기’보다는 ‘타인’이며 타인돌봄이 가족상담사가 된 동기이다. 이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4. 핵심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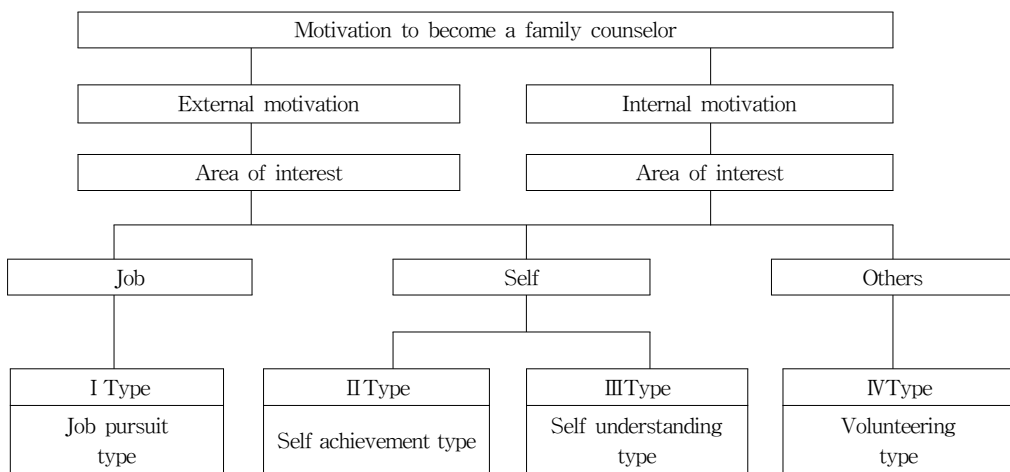
핵심범주(core category)는 연구의 중심 주제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 인지를 알려 주는 핵심적인 단어로 응축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서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작업이다(Park et al., 2012; Strauss & Corbin, 1998). 핵심범주의 선택기준은 모든 범주와 연관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자료에 자주 나타나야 하며 범주를 연결시킴으로써 발전하게 되는 설명이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

어야 한다. 이러한 핵심범주는 도출된 범주 중 하나가 되기도 하고,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몇 개의 범주로 구성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상담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 과정의 핵심범주는 “성장을 향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가족상담 전문가로 거듭나기”이다.

5. 상황모형

상황모형(conditional matrix)이란 중심현상과 관련되는 다양한 상황적 조건 즉, 인과적, 맥락, 중재적 조건들이 미시적, 거시적 조건들에 따라 작용/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단계들을 미시적 수준에서부터 거시적 수준까지 고려하여 현상에서 도출된 범주들 간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분석하도록 도와준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가족상담사의 ‘성장을 향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가족상담 전문가로 거듭나기’에 대한 상황모형은 개인 영역, 가족 영역, 대인관계 영역, 직업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개인 영역에서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공



<Figure 2> Professional identity and development type of family counselor

감능력이 발달한 개인특성 및 원가족 경험과 같은 맥락이 존재한다. ‘자기돌봄을 함’, ‘자기성찰을 함’, ‘지속적인 학습’ 전략을 추구해 가는 것이 중심현상의 전략/상호작용으로 수행된다. 이 전략들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중재적 조건은 ‘가족상담사가 된 동기가 있음’과 ‘지지체계가 있어 든든함’이다. 가족 영역에서는 원가족 내 돌봄자 역할을 했던 ‘원가족 경험’이 맥락으로 존재하며, 중심현상에 대한 전략으로 ‘자기성찰을 함’, ‘성숙한 관계 맺기를 시도함’, ‘지속적인 학습을 함’ 전략이 상호작용을 한다. 이 전략들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중재적 조건은 ‘가족상담사가 된 동기가 있음’과 ‘지지체계가 있어 든든함’이다.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소속 상담단체에서 교육받고 훈련되어지는 ‘상담 커뮤니티 문화’가 맥락 속에 존재하며, ‘자기돌봄을 함’, ‘성숙한 관계 맺기를 시도함’, ‘지속적인 학습을 함’과 같은 전략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성공적인 가족상담사 경험과 같은 ‘가족상담사로서 유능감을 경험’하고 슈퍼바이저의 격려와 동료상담사의 공감과 위로와 같은 지지체계가 중재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직업 영역에서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 ‘상담 커뮤니티 문화’가 맥락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가족상담사들은 ‘가족상담에 몰입하기’와 ‘외적인 자격을 갖추기’,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을 함’ 전략으로 수행한다. 이 전략을 수행하는데 ‘가족상담사로서 유능감을 경험’하고 ‘가족상담직에 대한 평가를 함’이 이를 촉진하거나 저해한다.

제도나 법을 포함하는 국가나 국제사회 영역은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 직접적인 작용/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거시적인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상담과 관련한 법의 유무는 국가적 수준에서 맥락적 조건이 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가족상담에 대한 정책과 법 등을 통해 가족상담사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외국의 가족상담 관련 정책과 법, 그리

고 가족상담사 자격제도는 국내 가족상담 관련 법 및 정책과 가족상담사들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많은 상담자들이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Hur & Shin, 2015)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 가족상담사들 또한 전문직 발달 과정의 핵심범주에서 나타나듯, 성장을 향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가족상담 전문가로 거듭나고자 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몰입단계, 자기이해 및 수용단계, 그리고 통합단계를 거쳐 가족상담사에서 가족상담 전문가로 성장·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에 따라 각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개인의 성격특성, 교육과 훈련과정,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 유형에 따라 ‘몰입 단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고 ‘자기이해 및 수용 단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본 연구 결과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발달은 순환적 형태라기보다는 선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상담자의 발달이 순환적 형태를 갖는다(Auxier, Hughes, & Kline, 2003; Smith, 2007)는 주장과 배치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이해 및 수용’ 단계에서 개인의 심리내적 측면에서는 자기이해-자기수용-자기신뢰라는 순환적인 형태를 갖는다. 그러나 직업이라는 외부환경과 상호작용 한 결과로서 전문직 발달은 몰입-자기이해 및 수용-통합이라는 선형적인 단계를 갖는다. 이는 본 연구가 1급 가족상담사를 대상으로, 특정 시점에 국한시켜 진행한 연구의 한계점 일 수도 있고, 가족상담사만의 특징일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에 대한 장기적인

시점과 초보상담사, 숙련된 상담사, 슈퍼바이저의 비교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상담사가 된 동기와 관심영역에 따라 성장하고자 하는 지향점은 다르게 나타났다. 외적 동기가 강한 직업형과 자기성취형은 인성보다는 전문성을, 내적 동기가 강한 자기이해형과 사회봉사형은 전문성보다는 인성을 추구한다. 또한 직업, 자기, 타인으로 나누어지는 관심 영역에 따라 전문성과 인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다르다. 따라서 이들 유형에 따라 가족상담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과 이를 중재하는 조건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대다수의 가족상담사들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교육과 훈련보다는 개인적인 선택과 경험에 의존해 가족상담을 수행해 온 측면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가족상담과 가족상담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합의의 부족으로 인해 개인이 형성한 직업적 의미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구 참여자들이 가족상담에 몰입하기와 학위, 자격증과 같은 외부적인 조건 갖추기에 몰입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개인적인 선택과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인적 경험과 외부적인 조건이 가족상담의 전문성과 그 효과성을 보장하기 보다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가족상담의 결과를 좌우하고 있다. 가족상담이 전문직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가족상담 효과와 그 효과의 균등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족상담사의 전문성과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을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가족상담사의 발달 단계에 따른 차등화 된 교육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상담을 경험할 수 있는 상담현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영역에 따라, 그리고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과 유형이 나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상담사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가족상담에 몰입하기(경험), 외적인 자격을 갖추기(외부검증), 성숙한 관계 맺기를 시도함(대인관계), 자기돌봄 및 자기성찰(내부검증), 지속적인 학습(지식)이다. 경험 그 자체가 가족상담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거나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의 축적은 성장을 향한 첫 걸음이 된다. 그러나 가족상담 경험만으로는 전문성을 보장하고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지식과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많은 연구들이 상담자의 전문직 발달에서 다른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담 전문가로서 사회화되는 것을 강조한다(Gibson et al., 2010; Puglia, 2008). 특히 상담자 발달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슈퍼바이저와 동료와의 관계가 중요한 요소(Ronnestad & Skovholt, 1993)로 강조되어 왔다. 상담자들은 슈퍼바이저에게 상담자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고, 성장하도록 자극 받으며, 정서적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 또한 슈퍼비전 경험을 통해 상담자 문화를 배우고(Dollarhide & Miller, 2006) 익힐 수 있게 된다. 이와 달리 동료 상담사들과의 관계는 가족상담사로서 상호 동등한 관계로 정서적 위로와 상담사례에 대한 조언 등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외에 가족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족상담사로서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지지체계는 가족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히스패닉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Nelson과 Jackson(2003)의 연구결과에서 타인과의 관계,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 문화적 요소로 나타난 것과 연결시켜볼 필요가 있다. 가족상담사가 된 동기에 가족과 관련한 주제들이 포함된 개인적인 이유 외에 관계 특히 가족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는 한국적 문화와 관련된 영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가족상담사가 속한 직장, 사회, 문화가 가

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과 발달에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

상담자의 발달의 핵심적인 기제로 언급된 자기성찰은 상담자로서의 태도, 가치관, 윤리적인 이슈 등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하게 함으로써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Hur, 2009; Kim, 2005) 중요한 이슈이다. 자기성찰은 자신에 대한 지식을 쌓고 이러한 지식이 증가하면서 성숙한 인격과 건강한 정신을 갖출 수 있다. 자기성찰은 전문직 정체성을 발달시키기도 하지만 그러한 발달의 결과로 상담자로서의 역량 강화와 개인적인 성장을 촉진하기도 한다. 선행연구들은 자기성찰을 개인의 심리내적인 측면으로 국한시키는 반면,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성찰은 개인에서 가족으로, 개인에서 직업으로 확대되는 특징을 보인다. 가족상담사의 자기성찰은 개인 심리내적인 측면과 더불어 원가족을 포함한 가족관계에 대한 성찰로 그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상담사들의 자기성찰은 개개인의 심리내적인 성찰과 더불어 가족관계, 문화적 요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성찰이 이어져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가족상담사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학습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상담자들은 부족한 지식을 메우기 위해 배우려는 욕구가 크고(Smith, 2007), 상담경험이 많아질수록 학습에 대한 관심도 구체화되어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한다(Gibson et al., 2010b). 학습은 상담자가 좌절을 겪거나 소진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촉진제(Moss et al., 2014)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담자들의 모습은 ‘만족을 모르는 학습자’(Jennings & Skovholt, 1999)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가족상담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본 연구 참여자들 모습 또한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높고,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 단계마다 학습을 중

요한 전략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학습 패턴이나 전략은 발달 단계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이들의 학습은 타인에 의한 외부교육에서 자기주도의 내부교육으로 이동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 입문초기, 외부강의나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같은 타인에 대한 진행되는 외부교육에서 자기성찰, 교육분석, 슈퍼비전과 같은 자기중심의 내부교육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학습 패턴의 변화는 흔히 공식적인 교육을 통한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중요시 하는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진정한 지식은 경험을 통한 실천적 지식과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Schön(1983)의 주장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겨진다. 또한 전문직 정체성은 시간과 경험을 통해 외부교육이나 검증으로부터 점점 더 상담자의 자기검증에 이르는 내부검증 과정에 이른다(Auxier et al., 2003; Brott & Myers, 1999; Gibson et al., 2010a)는 선행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는 가족상담사들에게 대학, 학회, 전문 교육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제공될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대부분의 가족상담사들은 학위과정을 마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서 상담을 받거나 슈퍼비전, 교육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야말로 가족상담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성장의 촉매제임은 틀림없다. 더불어 강의식 교육 외에 자기성찰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육이 고려되어야 하며, 가족상담사의 발달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직까지 가족상담사의 학습에 대한 연구는 구체화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족상담사 발달과 교육, 가족상담사의 전문지식과 학습이 이후 상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시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후속 연구를 위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15명의 가족상담사들은 가족상담 1급 자격을 가진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상담사들로, 최소 6년에서 최대 15년을 넘지 않는 가족상담 경력을 갖고 있다. 가족상담사들의 집단은 최종학력, 전공여부, 근무여건, 상담경력에 따라 다양한 특성과 경험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을 추천받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특정 지역의 편중을 조절할 수 없었다. 제한된 연구 참여자와 그들의 경험이라는 한계로 인해 본 연구 결과는 모든 가족상담사들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동질 집단별 비교 연구나 개인상담 혹은 집단상담 같은 집단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전문직 발달과 영향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중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여 가족상담사들의 발달을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러한 발달 과정을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상담을 시작한 시점에서 전문가로 발달해 가는 과정에 대한 장기적 연구가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족상담사들의 전문직 발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집중되어 있다. 후속 연구에서 가족상담사에 대한 중단연구나 양적 연구를 통한 전문직 발달에 대한 요인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가족상담사 전문직 발달에 대한 보다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족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직 정체성과 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상담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없이 가족상담을 담당하게 되는 현실이 가족상담사들로 하여금 가족상담과 가족상담사의 역할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게 한다. 더불어 가족상담을 둘러싼 상담환경은 전문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가족상담사들의 스트레스와 소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직무 관련 스트레스가 상담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이 어떠하냐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해줄 수 있다. 가족상담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에서부터 이후 재교육에 이르기까지 가족상담사로서의 신념과 소명의식 등 전문직 정체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정 및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을 탐색하였지만, 가족상담과 가족상담사를 둘러싼 사회환경에 대한 진단과 가족상담사 교육, 자격제도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방안까지는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가족상담을 포함한 상담영역에 대한 일반인 대상의 의식조사와 연구는 상담에 대한 선입견 완화와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상담이 다양한 형태로 법제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의 비교연구는 우리나라 가족상담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법과 제도를 준비하는 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을 살펴보고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패러다임 모형은 가족상담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 과정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는 데에 개념적인 틀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족상담사 발달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공하였다. 이는 가족상담에 입문하거나 가족상담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역할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가족상담사 발달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가 가족상담사 교육과 슈퍼비전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가족상담에 입문하는 초보 가족상담사와 경험이

많은 숙련 가족상담사를 함께 교육해야 하는 교육 현실에서, 본 연구 결과는 가족상담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담 교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족상담과 가족상담사의 고유한 발달을 고려한 슈퍼비전을 설계하는데 이론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가족상담사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르는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각 단계에 따라 가족상담사에 요구되는 능력과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상담 관련 법률과 제도 마련을 위한 1차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가족상담사 자격제도는 학회와 민간 상담단체를 중심으로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며 별도의 자격기준과 자격제도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가족상담사의 배출과 상담관련 자격증이 남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는 가족상담 관련 법률과 제도, 가족상담사 국가자격제도의 준거, 보수교육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uxier, C. R., Hughes, F. R., & Kline, W. B. (2003). Identity development in counselors-in-training.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3*, 25-38.
- Birks, M., & Mills, J. (2015). *Grounded theory - A practical guide*(Gong, E. S., & Lee, J. D, Trans.). Seoul: Jungdam Midea. (Original work published 2015)
- Brott, P. E., & Myers, J. E. (1999). Development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identity: A grounded theory.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2*, 339 - 348.
- Calley, N. G., & Hawley, L. D. (2008).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counselor educators. *The Clinical Supervisor, 27*, 3-16.
- Cho, E. S., Choi, Y. S., & Kim, M. K. (2015). A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for family counselors in Korea. *Family and Family Therapy, 23*(1), 89-113.
- Corbin, J. M., & Strauss, A. L.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3rd ed.). CA: Sage.
- Dollarhide, C. T., & Miller, G. M. (2006). Supervision for preparation and practice of school counselors: Pathways to excellence.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5*, 242 - 252.
- Everett, C. A. (1981). *Developmental stages and transitional crises in the supervision of family therapy students*. Unpublished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San Diego, CA.
- Fleming, J. (1953). The role of supervision in psychiatric training.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17*, 157-169.
- Friedman, D., & Kaslow, N. (1986).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identity in psychotherapists: Six stages in the supervision process. *Clinical Supervisor, 4*, 29-49.
- Gibson, D. M., Dollarhide, C. T., & McCallum, L. J. (2010). Non-tenured, assistant professors as aca division presidents: The new look of leadership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8*(3), 285-292.
- Gibson, D. M., Dollarhide, C. T., & Moss, J. M. (2010b). Professional identity development: A grounded theory of transformational tasks of new counselor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50*, 21-38.

- Gibson, D. M., Dooley, B., Kelchner, V., Moss, J. M., & Vacchio, C. (2012). From counselor-intraining to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Understanding professional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Professional Counseling: Practice, Theory and Research*, 39(1), 17-25.
- Hearling, R. E. (1998). *Expertise: The development of an operational definition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R. J. Torrance(Ed.),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pp.715-722)*. Baton Rouge, LA: AHRD.
- Hogan, R. A. (1964). Issues and approaches in supervis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3), 139-141.
- Hur, J. K. (2009). (A) qualitative case study on counselor development in reflection cetered supervi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Hur, J. K., & Shin, Y. (2015). A qualitative study on female counselor's counselor professional identity developed experienc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4), 615-639.
- Hwang, C. W., Park, J. A., Yoo, S. K., & Kang, J. Y. (2009). A qualitative study on graduate students' experiences in counseling psychology program in Korea.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3), 1359-1382.
- Hwang, S. C. (1998). The debate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work practice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work in the United States - focusing on clinical practic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34, 215-245.
- Ibarra, H. (1999). Provisional selves: Experimenting with image and identity in professional adapt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4, 764 - 791.
- Jang, Y. J. (2015). A qualitative study on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counsel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2), 539-568.
- Jennings, L., & Skovholt, T. M. (1999). The cognitive, emotion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master therapi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1), 3-11.
- Kim, J. S. (2005). The significance and application of reflective practice in counselor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4), 813-831.
- Kim, S. C., Noh, H. L., & Choi, I. S. (1996). A study of effectiveness of the solution focused brief family therapy in resolving family problem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8, 101-133.
- Moss, J. M., Gibson, D. M., & Dollarhide, C. T. (2014). Professional identity development: A grounded theory of transformational tasks of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2(1), 3-12.
- Nelson, K. W., & Jackson, S. A. (2003). Development: A qualitative study of Hispanic student intern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3, 2-14.
- Noh, M. W., & Choi, Y. S. (2015). A phenomenological study on family counselors' experienc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1), 117-141.
- Nyström, S., Dahlgren, M. A., & Dahlgren, L. O. (2008). A winding road: Professional trajectories from higher education to working life—A case study of political science and psychology graduates. *Studies in Continuing Education*, 30, 215 - 229.
- Oh, H. S. (2009). Analysis on the experience overcoming frustration i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professional

- counsel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Seoul, Korea.
- Oh, H. S., & Sung, E. M. (2010). Trend analysis of expert society through changing profess.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9(2), 205-223.
- Park, A. S., & Hwang, M. G. (2008). Issues for identification in relation to counseling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4), 903-929.
- Park, J. W. (1994). (A) Study on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social work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M., Kim, G. S., Bang, G. Y., Oh, Y. H., & Lim, E. M. (2012). *Counseling research process using grounded theory approach*. Seoul: Hakjisa.
- Puglia, B. (2008).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counseling students in master's level CREP accredited progra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ld Dominion University, New Orleans.
- Reid, A., Dahlgren, L. O., Petocz, P., & Dahlgren, M. A. (2008). Identity and engagement for professional formation.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3, 729 - 742.
- Rønnestad, M. H., & Skovholt, T. M. (1993). Supervision of beginning and advanced graduate student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4), 396-405.
- Rønnestad, M. H., & Skovholt, T. M. (2003). The journey of the counselor and therapist: Research findings and perspectives on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1), 5-44.
- Schö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 think in action*. NY: Basic books.
- Seo, J. S. (2010). A review of family counseling training research based on program evaluation.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1), 317-334.
- Shim, H. S. (1998). *Assessment of the developmental levels of Korean counsel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H. J., Noh, C. Y., & Kim, E. Y. (2005). Family training programs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3(2), 29-60.
- Skovholt, T. M. (2003). *The resilient practitioner*(Yoo, S. K., Yoo, J. L., Lee, Y. J., & kim, S. G. Trans.). Seoul: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1)
- Skovholt, T. M., & Rønnestad, M. H. (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4), 505-515.
- Skovholt, T. M., & Rønnestad, M. H. (1995). *The evolving professional self: Stages and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 Smith, R. G. (2007). Developing professional identities and knowledge: Becoming primary teachers. *Teachers and Teaching: Theory and Practice*, 13, 377-397.
- Song, J. E. (2006). (The) study on social working place and identity of professional job.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 Sprenkle, D. H. (2003). Effectiveness research in marriage and family therapy: Introduct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9(1), 85-96.
- Stoltenberg, C. D., & Delworth, U. (1987). *Supervising counselors and therapists*. San Francisco: Jossey-Bass.
- Strauss, A. L., & Corbin, J. M.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 procedures and techniques*. NY: Sage.
- Strauss, A. L., & Corbin, J. M.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CA: SAGE.
- Troman, G. (2008). Primary teacher identity, commitment and career in performative school cultures.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4, 619-633.
- Wheeler, J. K. (1980). A comparative study of professional identity among counseling majors by specia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abama, Birmingham, USA.
- Yardley, L. (2000). Dilemmas i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Psychology and Health*, 15, 215-228.

접 수 일: 2017. 11. 15

심 사 일: 2017. 11. 21

게재확정일: 2017. 12. 14